

북한의 사회변동 : 제2사회의 형성 전망을 중심으로

徐 載 鎮*

◁ 目 次 ▷

- | | |
|-------------------------------|----------------------|
| I. 서 論 | V. 인성구조의 이중성 |
| II. 혁명의 재창조와 혁명의 일상화
의 이중성 | VI. 권력 엘리트 구성의 이중성 |
| III. 세대구성의 이중성 | VII. 경제구조의 이중성으로의 이행 |
| IV. 계급구조의 이중성 | VIII. 결 論 |

I. 서 論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한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중에서 사회학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제2사회(the second society)라는 개념이다.¹⁾

제2사회는 사회주의체제의 공식 사회와 공존하면서 형성되어진 비공식

*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長

1) 동구 사회주의 시민사회 이론가들의 신진화주의(new evolutionism), 반정치(antipolitics), 병렬사회(parallel society), 제2의 사회(second society), 대안적 사회(alternative society), 시민사회(civil society) 등의 개념은 모두 급진적,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심성(mentality)에 대한 지적·도덕적 교체를 추구하는 개념들이다.

사회로서 결국은 공식사회를 전복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사회주의권의 반체제운동인 시민사회 운동도 다름아닌 제2의 사회를 형성하는 운동이다.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은 사회주의체제에서 공식적인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매우 무모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식세계는 공격하지 않으면서 당국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제2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운동이었다.²⁾ 따라서 제2사회는 기본적으로 반정치(antipolitics)를 지향하였다. 반정치는 권력을 잡을 수도 없으며 권력을 잡기를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행위를 의미하다. 반정치는 삶의 모든 영역을 정치화해버린 정치에 대한 혐오감의 표현이며 제2사회란 국가의 통제의 바깥에 존재하는 인간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이다.³⁾

제2사회의 성장은 단순히 시민사회운동의 결과로서 등장한 것은 결코 아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분화가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사회구조의 제반 측면에서 제1사회와 병존하는 새로운 구조가 성장한 결과 개인의 가치의식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사회는 흔히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회로 이해되고 있다. 주체사상과 명령경제체제에 의하여 사회 전체가 획일화된 구조와 유일가치체제에 의하여 작동하는 사회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제2사회의 성장과 제1사회의 와해의 결과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한 것이라고 본다면 북한사회는 과연 어떠한 단계에 있는가? 북한사회에는 제2사회가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북한은 소련 및 동구와는 전혀 다른 사회인가?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동원 사회로서 사회동원력, 인

2) H. Gordon Skilling, *Samizdat and an Independent Societ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olumbus :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89)

3) Miklos Haraszti, "The Beginning of Civil Society : The Independent Peace Movement and the Danube Movement in Hungary," in Vladimir Tismaneanu ed. *In Search of Civil Society : Independent Peace Movements in the Soviet Bloc* (New York : Routledge, 1990), pp.85-87.

구구성, 계급구조, 주민들의 인성구조, 권력엘리트 구조, 경제구조의 6개 측면에서 제2사회의 성장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논문은 여타 사회주의가 모두 붕괴하거나 급진적으로 변화된 시점에서 북한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Ⅱ. 혁명의 재창조와 혁명의 일상화의 이중성

북한은 항일 유격대의 빨치산 혁명전통을 사회통제의 핵심적 모델로 사용하고 있다. 김일성의 표현을 빌면 “오랫동안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일제를 반대하여 싸워이긴 항일빨치산들의 투쟁과 생활은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을 끝없이 감동시키며 그들을 영웅적 투쟁으로 고무하는 산 모범”으로 되고 있다.⁴⁾ 이 빨치산 혁명전통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와 같이 오늘의 생활을 규정하는 혁명의 지도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항일빨치산의 전통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복원’하고 있다. 이는 복원이란 것 보다는 허구적 재창조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북한은 자기 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일투쟁의 전통을 1955년⁵⁾부터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활용하고 있다. 왜 이 시점에서 항일저항운동이 확대 복원되어 활용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는 1953년 스탈린 사후,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의 우상숭배를 비판한 후 사회주의권에 변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던 때였다. 즉, 소련에서 수정주의가 등장하

4) “은 사회에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더욱 튼튼히 세우자,” 「근로자」, 1980년 3호, p.9.

5) 김일성의 “레닌의 학설은 우리의 지침이다,”(「근로자」, 1955년 제4호)라는 글을 통해 김일성은 1930년대의 항일빨치산 운동을 자기의 것으로 유일 정통화하는 역사의 왜곡을 시작하였다.

고 동베를린, 폴란드, 헝가리, 체코에서 반소 민족주의 시민봉기가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시기였다. 만약 그때 소련의 군사적 개입이 없었더라면 1989년에 일어난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가 그때 일어났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이 북한에도 영향을 미쳐 반김일성 세력들이 김일성의 우상숭배경향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하고 나오자 김일성정권은 일대 위기에 직면했다. 이러한 정권위기의 상황에서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 동구사회주의권의 수정주의와 우상숭배의 바람을 차단하기 위하여 자주성 또는 독자노선이라는 개념을 핵심내용으로하는 주체사상을 내세워 사회주의권과의 단절과 폐쇄주의 노선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채택된 주체사상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북한에서는 북한 사회과학을 총동원하여 항일혁명운동의 역사 연구가 추진되었다. 1955년에서 1967년 사이에 「력사과학」이라는 잡지를 통하여 1920~1930년대의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에 관한 대대적 연구를 발표하였다.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이 사실이 표현되어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노동운동사, 민족해방 투쟁사들에 대한 연구가 무시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리 또는 편찬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진행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경험을 연구하지 않고서 어떻게 조선혁명을 옹기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⁶⁾ 주체사상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속에서 과거의 민족주의운동, 민족해방운동은 주체사상의 역사적 정통성 부여작업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1979~1983년사이에 22권으로 된 조선전사, 1983년에 「현대조선력사」, 1987년에 「조선통사」를 발간했다. 이렇게 복원된 항일유격대 빨치산의 혁명전통을 어떻게 동원하고 있는지가 아래의 인용문에서 잘 나타나 있다.

사회주의 건설이 힘있게 진척되고 있는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이 벽두밀림에서 높이 발휘하였던 그 불타는 열정과 투지,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그대로

6) 제4차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서울: 통일원, 1988)

일하고 생활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새로운 높이에서 힘차게 전진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黨이 제시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 유격대식으로!〉라는 전투적 구호를 높이 받들고 온 사회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전투적인 사업기풍,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는데 사회주의 건설에서 끊임없는 위대한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며 우리 혁명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다그쳐 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⁷⁾

즉,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을 오늘에 되살려 따라 배우며 그것을 생산, 학습, 생활의 역할 모델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80년대 들어 항일빨치산 전통이 더욱 강력하게 동원되는 이유는 중국이나 소련, 동구 사회들이 개혁한다고 해서 북한도 개혁할 것이 아니라 ‘주체식’ 또는 ‘우리식’으로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외부의 변화의 사조가 북한 내부로 침습하여 동구나 중국 및 소련에서 처럼 인민대중들이 봉기할 것을 우려하여 대응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⁸⁾ 그 중의 한 내용을 보자.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우리혁명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세우는 것은 올바른 로선과 전략전술이 없어 실패만 거듭하던 선행한 운동들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 그리고 전인미답의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해나가야 할 항일혁명의 특성으로부터 제기되는 절박한 요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적인 전략전술을 밝히는 것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근본문제로 내세우시었으며 항일혁명투쟁을 령도하는 전기간 우리 혁명의 실정에 전적으로 맞는 주체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해 나가시었습니다.⁹⁾

7) “온 사회에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더욱 튼튼히 세우자,” 「근로자」, 1980년 3호, p.8.

8) 「근로자」에 게재된 몇개의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박인근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데서 이룩한 고귀한 경험,” 「근로자」(1989.1); 권중영,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녔던 숭고한 애국정신,” 「근로자」, 1987년 1호; 황순희, “항일혁명투쟁 시기의 대중정치사업,” 「근로자」 1982가 1호.

9) 박인근, 윗글, p.43.

항일빨치산 혁명때 고생하면서 조국과 민족을 지켰듯이 지금과 같은 위기에서도 정권을 이반하지 말고 사회에 통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자주 인용되고 있는 김일성의 말은 다음의 것이다 :

지난날 험산준령을 넘나들며 무장투쟁을 할 때에 늘 부모형제들에 대한 생각, 고향에 대한 생각, 조국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싸웠습니다.¹⁰⁾

항일빨치산 전통이 주체사상의 한 핵심내용인 군중노선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가 다음의 인용문에서 잘 나타난다.

어찌하여 항일빨치산이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었습니까? 빨치산들이 옳은 군중관점에 서 있었고 그들이 군중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군중의 이익을 옹호하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싸웠기 때문에 그들도 이와같이 우리를 지지하고 보호해온 것입니다. ...군중을 이탈한 당은 마치 물을 떠난 고기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군중이 없는 당이 무엇을 가지고 혁명을 하겠습니까?¹¹⁾

이러한 혁명의 재창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혁명은 이미 일상화(routinization)되어 혁명적인 효율성이 매우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에서 혁명성의 약화로 혁명후기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징후의 하나는 물질에 대한 욕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혁명의 핵심이 사상성인데 오히려 물질에 대한 욕망이 높아진 것은 혁명적 가치가 전도된 결과이다. 김일성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면서 어떻게 해서 계속 일만 시키고 주는 것은 그대로인가라고 회의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던 물질에 대한 욕망이 높아지고 노동의 댓가로서 충분한 물질적 보답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대가 보상되지 않을 때 고의적으

10) 「김일성저작집」 제3권, pp.237-38 ; 권중영 원글, p.44에서 재인용.

11)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로 노동을 기피한다든가 지도이념과 지도체제에 대하여 불만을 의식하게 된다. 「로동신문」 논설은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하여 스스로 비판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와 결함들을 분석하는 대목에서 ‘혁명성’이 미약하며 근로자들의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고, 관료주의적 사업방법과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제지도 관계자들로 말미암아 근로자와는 융화되지 못한 채 유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착취계급의 낡은 사상”이라고 지적하고 “자기의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노동을 충실히 해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이며 공동노동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¹²⁾

다른 공산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주민들이 상점, 사무실과 공장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북한방문자들은 쉽게 알 수가 있다. 보상이 없으므로 의욕도 없다. 모든 인민들에게 생산에서 경이적인 위업달성과 충성심을 보일 것을 라디오와 선전간행물을 통해 독려하는 공식적인 미사여구가 끊임없이 범람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선전과 생활상과의 관계는 정반대이다. 상호 보강관계로서 인민들의 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수록 과대선전을 하기 마련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¹³⁾ 혁명의식이 일상화되고 혁명후기 국면의 징후를 나타내주는 예로서 노동기피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기피현상에 대한 단적인 예로서 중국사회과학원 S교수가 한 농사꾼 청년과 나눈 대화를 보자 :

“당신들은 왜 열심히 농사를 안짓느냐?”고 물었어요.

“선생님, 농사지어서 우리 입에 들어와요?”

“소변 세번하고 대변 한번 하면 해져요.”

“집단농장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서로 감시를 하고 뭐 이랬어요. 그러나 한 마을에서 같이 평생을 살다보니까 감시하는 사람도

12) 「로동신문」(1991.8.31).

13) Aidan Foster-Carter,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버마스 위기이론의 적용,” (민족통일연구원 제1회 국제학술회의발표논문, 1991), p.10.

없어요. 이젠 고발하는 사람도 없고 다 이젠 한가족같이 살아요. 몇 십년을 같이 사니까, 그리고 서로 결혼해가지고 얼키고 설키고 친척도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옛날같이 「혁명정신이 투철하지 못하다, 반동 분자다」하는 뭐 그런 고발이 없다구요.”

“일을 하다가 ‘아, 소변 한번 보고 와’ 하면 소변하러 가서는 뭐 한시간 아니면 30분, 그러니 소변 세번하고 또 대변하러 간다 해서는 1시간 놀다오고 이러면 하루 소변 세번하고 대변 한번 하면 해져요.” *
「최근 북한의 경제 사회상 : 중국과학원 S교수에게 알아본다.¹⁴⁾

현재의 북한상황을 보면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입장, 새로운 슬로건을 표방하고 사상교양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주민들 스스로가 느끼는 실제적인 성취감과 현실적 조건사이에 간격이 있을 때에는 주민들의 시각에서 그것을 액면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주민의 식과는 별개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계속혁명로선과 사상학습교양의 강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이제 ‘혁명’이 일상화되어 그 효과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강화 일변도로 나갈 경우 더욱 큰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보다 구조적인 분석이 이 글의 이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Ⅲ. 세대구성의 이중성

혁명이 체제 운영의 이념적 도구이며 그 이념을 지탱하는 것이 결국은 개인의 의식이라고 본다면 한 세대의 교체는 그러한 의식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사회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수립된지 45년이 지났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볼 때 이미 한 세대가 지난 세월이다.

14) 통일원 (1989), p.20.

따라서 혁명성의 전승에 초점을 맞추어 세대교체가 북한사회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¹⁵⁾

북한에서 세대교체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새세대가 구세대와 혁명의식에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동기효과(cohort effect)의 분석과, 구세대가 나이를 먹어 노년층이 되면서 혁명의식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연령효과(age effect)를 동시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45년이후 북한사회에서 일어난 변화의 하나는 우선 혁명세대의 사멸과 혁명후기세대로의 교체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25전쟁(1953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표 1>에서 39세 이하)은 전체 인구의 7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혁명세대라고 불리는 전쟁전에 태어난 사람(<표 1>에서 40세 이상)은 21.5%에 불과하다. 그런데 더 엄격히 말하여 전쟁전에 국민학교를 들어가기 이전의 유년기에 있었던 사람을 새세대로 본다면 전후세대(<표 1>에서 44세 이하)는 83.7%에 달한다. 북한에서 혁명세대라는 말이 일제기간 동안 항일운동에 참여했거나 6.25 전쟁기간 동안 “미제”와 싸운 경험이 있는 세대(6.25 당시 10세 이상을 포함하면 현재 50세 이상)는 12.1%에 불과하다. 이것은 북한 인구의 대부분이 이미 전후세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5) 世代的 개념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처럼 가계승의 단위(unit of kinship decent) 개념, 둘째 청년층 세대나 대학생 세대라고 부를 때 처럼 생애주기(life cycle)의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개념, 셋째 나이를 먹음에 따라 연령층을 함께 이동하는 동시출생집단 또는 동기집단(cohort)을 지칭하는 개념의 경우이다. 이 중에서 특정 기간내에 주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로서 정의되는 동기집단은 오늘날 세대 연구의 중심개념이다. David Kertzer,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9 (1983). 동기집단의 세대개념이 학계에 보편화되게 된 것은 같은 시대, 같은 사건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동기집단들 간에 모종의 의식적 공감대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지식사회학적 사고가 보편화 되고나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Karl Mannheim, “The problem of generation,”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52). 이렇게 세대의 개념이 정의된다면 세대효과(generation effect)라는 말은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동기효과(cohort effect)와 흔히 성숙효과라고 부르는 것으로 나이를 먹어간다는 사실과 직결되는 연령효과(age effect)의 합이라고 볼 수 있다. Norval D. Glenn, *Cohort Analysis*, Sage University Paper Series 5 (Sage Publication, 1980).

〈표 1〉 북한의 연령별 성별 인구분포

연 령	%	% 누계	전 체	남 자	여 자
0	12.3	2.3	493,552	252,079	241,473
1-4	8.5	10.8	1,808,316	922,501	885,815
5-9	9.6	20.4	2,046,355	1,042,714	1,003,641
10-14	9.1	29.5	1,949,407	991,168	958,239
15-19	11.8	41.3	2,531,943	1,283,591	1,248,352
20-24	12.4	53.7	2,658,012	1,342,791	1,315,221
25-29	9.5	63.2	2,041,534	1,024,064	1,017,470
30-34	8.8	72.0	1,875,169	939,853	935,316
35-39	6.5	78.5	1,380,927	691,191	689,736
40-44	5.2	83.7	1,100,728	548,727	552,001
45-49	4.2	87.9	900,998	446,532	454,466
50-54	3.5	91.4	757,991	345,978	412,013
55-59	2.9	94.3	620,179	269,532	350,647
60-64	2.1	96.4	450,494	181,397	269,097
65-69	1.5	97.9	329,689	125,824	203,865
70-74	1.0	98.9	223,830	82,942	140,888
75-79	0.6	99.5	137,636	47,668	89,968
80+	0.5	100	104,858	28,398	75,460
계	100		21,411,618	10,567,950	10,843,668

자료 :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Center for Int'l Research, US Bureau of the Census, Washington, D.C.(1990)에서 계산.

이렇게 많은 수를 차지하는 새세대는 일제의 지배, 전쟁, 절대적 빈곤을 경험한 기성세대에 비해 대체로 사상성과 혁명성이 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지도부의 표현에 의하면 “학생 등 새세대 중에는 혁명적 시련을 겪지 못하고 당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알며 자라난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서구의 부르조아 문물에 물들기 쉽다”¹⁶⁾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새세

16) 「로동신문」 1991. 6. 5.

대가 민주적 시민의식과 진보적 성향이 강하듯이 북한의 새세대도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매체에 매우 자주 지적되고 있는 대로 북한의 새세대도 북한의 강력한 체제유지 교육에도 불구하고 과반수를 차지하는 청장년층의 당성과 혁명성이 약한 것은 북한사회의 기존체제유지에 도전적 요인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는 1960년대에 이미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음을 김일성의 지적에서 알 수 있다. 1963년 2월에 이미 김일성은 휴전선 너머에 있는 적들이 우세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은 계급의 적에 대한 투쟁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한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자라난 우리의 젊은이들은 지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본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국주의자들이 어떻게 악독한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대장들이 정치상황을 지도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질문들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이 좋아지면서 일부 청년들속에서 투쟁하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화도 전쟁영화 같은것은 쏘쏘해서 싫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저 좋다 좋구나 하면서 놀기만 좋아하고 곤난을 이겨내기를 싫어합니다. 곤난을 이겨내는 투쟁을 강하게 전개해야 용감성과 참을성이 배양될 것인데 이런 투쟁이 없고 점차 라태하고 안일한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젊은 세대들이 적을 잊어버리고 투쟁하기를 싫어하며 안일한 것만 좋아하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놓은 업적마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¹⁷⁾

새로운 세대의 이러한 문제는 사회화의 실패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¹⁸⁾

17) 김일성, “우리의 인민군대는 노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 정치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인민군부대 정치부련대장이상 간부들 및 현지 당, 정권기관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3. 2. 8.) 「김일성저작선집」, 3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1), pp.468~72.

18) 도홍렬, “북한사회의 개방화요인과 전망,” 「통일논총」(서울: 통일원, 1984)

북한의 젊은 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자아를 의식하지 못하고 남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 하게 되지만 고등중학교를 마치는 단계에 오면 그들 스스로가 자신과 북한에 대해 여러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 한국·미국·일본 등 외부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한층 더해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심리적 변화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포함된다.

북한은 평등사회이고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배웠는데, 어째서 대학진학, 직장배치, 장교입관, 「로동당」입당, 도시지역 거주 등 모든 생활분야에서 성분·핵심계층·당간부의 자녀·출신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인가?¹⁹⁾

이는 북한이 출신성분을 철저히 따져 당간부들의 경우 그 자녀들에게까지 정치적·사회적 혜택과 우선권을 주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한 현실적 조건에 대한 각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고등중학교 졸업반이나 대학에 들어 갈 단계가 되면 이러한 회의와 불만이 더욱 깊어지고 중국에는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으로까지도 발전하게 된다. 듯 북한사회에서는 사회화 실패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당국은 청소년들간에 안일주의가 팽배하고 투쟁이 약화되고 혁명성이 퇴색하고 있다고 그들 스스로가 비판하고 있다. 즉 「일하기 싫어하고」, 「조직생활을 싫어하고」, 「학습하기 싫어하고」, 「직장이탈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하나의 경향은 청소년층에 서구풍조가 확산되는 조짐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청소년 가운데 일부는 디스코풍의 록음악을 즐겨들으며 은밀한 곳에 모여 디스코를 추기도 하는데, 이같은 젊은이들은 대부분 일본, 홍콩 등지로부터 방문하는 상인을 통해 카세트라디오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고급 당간부 자녀들이라는 것이다. 평양에는 주민을 위한 공개적인 디스코텍은 없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 등 10여곳에는 디스코텍이 설치되어 있는데 당간부

19) 「내외통신」(1983. 8. 26).

자녀를 비롯한 일부계층은 외화와 바꾼 돈표 3원을 내고 입장하고 있으며 돈이 없을 경우에는 외국인과 동행하여 입장하려고 호텔주위를 배회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의 ‘혁명성’의 문제가 우려할 정도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는 새로 제정되어 시행된 「청년절」 행사이다. 북한은 1991년에 8월 28일을 처음으로 「청년절」로 제정하여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하였다. 8월 18일부터 청년절 당일인 28일까지를 「청년학생축전기간」으로 설정하고 정치, 경제, 예술, 체육 등 분야별로 나누어 북한 전역의 청년학생들을 참가시킨 가운데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 행사 다음가는 전국 규모의 거대한 행사를 치렀다. 중앙보고대회에는 전국의 10만여 인파가 동원되었다. 8월 28일을 청년절로 제정한 이유에 대해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은 “김일성이 항일혁명 투쟁기에 청년운동발전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을 결성한 1927년 8월 28일을 기념하여 이날을 청년절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동안 북한 전역의 청년, 사로청원들에게 보낸 서한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 전위가 되자」에서 김정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교양했다.

청년들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모든 문제를 우리 식대로 풀어가며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요소와 생활풍조에도 물젖지 말아야 합니다.…청년들은 썩어빠진 부르조아적 사상문화와 생활양식과의 투쟁을 강하게 벌려 자그마한 요소도 우리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항일혁명투쟁속에서 마련된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은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 청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자면 그 계승자인 청년들이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²⁰⁾

이 행사는 북한이 김정일과 청년세대의 관계강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분

20) 「월간 북한동향」 (서울 : 통일원, 1991년 8월).

식된다. 각 선전 매체를 통해 청년절이 김정일의 배려에 의해 제정되었음을 강조함으로써 김정일이 청년세대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을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 행사가 끝난 후에도 김정일이 전체 청년들에게 보냈다는 서한 내용을 관찰한다는 명목의 대규모 청년결기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10여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이같은 집회를 잇달아 열어 사상교양과 ‘김정일 따라배우기 운동’강화, ‘사회주의애국주의정신’함양, ‘북한식 사회주의 우월성’ 발양을 강조했다.²¹⁾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 사회에는 혁명을 경험한 세대는 사멸해가고 있으며 의식면에서 ‘혁명’을 체험한 세대와 체험하지 못한 세대간에 큰 차이가 나는 이중적 세대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Ⅳ. 계급구조의 이중성

이 절에서는 계급구조에 제2사회적 특성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사회에서 계급개념이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통해서 착취계급인 지주계급과 자본가계급을 해체함으로써 노동계급과 농민을 계급적 지배로부터 해방시켰다고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회구성의 원리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거하여 노동계급이 주체가 되는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실현되는 사회라는 것이 사회적 정당성의 이념적 기초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계급이론과 계급투쟁이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언어 중의 하나가 되어 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주권을 잡은 노동계급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자기 모양대로 개조해 나가는 과정, 즉 노동계급화해 나가는 과정”이다.²²⁾ 북한에서는 프로레타리아 계급독재의 역사적 사명이 착취계급(자본가, 지주)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21) 「내외통신」 9481호 (1991. 9. 18).

22) 「김일성저작선집」 4권, p.369.

진압하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를 개조하여 노동계급화 함으로써 온갖 계급적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고 또 노동계급의 보편적 이익(universality)을 지향하는 사회적 정당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정권창출 초기에 이미 착취계급을 말살하고 노동계급의 독재를 실현하여 계급없는 사회를 건설하였다고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계급투쟁을 선동하고 동원하고 있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마르크스의 계급리론은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의 양극적 대립을 가정하여 착취계급인 자본가 계급을 해체하면 노동계급의 독재가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전은 새로운 계급분화를 창출하여 마르크스의 이론적 각본에 없던 중간계급이 비대해졌다. 사회주의적 공업화는 북한에서도 직업구성을 변화시켰던 것이다. 1987년 현재 북한의 총인구 중 약 6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북한의 성인중 약 75%가 비농업인구로 분류되어 있어 북한이 농업사회에서 비농업사회로 이행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데로 농민이 1946년 당시 74.1%에서 1987년 현재 25.3%로 대폭 감소했고 대신 노동자의 비율이 1946년 말의 12.5%에서 1987년에 57.0%로 대폭 증가했다.

공업화가 야기시킨 계급구조의 중요한 변화는 북한에서 근로인테리로 불리는 신중간계급의 증가이다. 신중간계급의 비율은 1946년말의 6.2%에 불과하였으나 1987년에 약 17%에 이르게 될 정도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중간계급 또는 근로인테리는 양적으로 팽창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상당한 성장을 하였다. 그들의 일부는 사회적 상승이동을 하여 전문관료집단으로 부상하였으며 혁명엘리트와 과도기적 연합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계급구조의 이러한 변화는 전인민의 노동계급화, 무계급사회의 건설 정책과 상충됨으로써 새로운 계급투쟁의 요인이 되었으며 북한은 이론적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다렌도르프가 1957년에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에서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을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마르크스의 이론은 계급의 양극화를 가정하여 중간계급은 점차 소멸하여 프롤레타리아화될 것이라고 보았으나 현실적으로

〈표 2〉 북한 주민의 직업별 구성 변화

	1946 년말	1949 년말	1953 년	1956 년	1960 년말	1963 년	1965 년말	1986 년	1987 년
노동자	12.5	19.0	21.2	27.2	38.0	40.1	41.0	56.3	57.0
사무원	6.2	7.0	8.5	13.6	13.7	15.1	16.5	17.0	16.8
(근로인테리)									
농업협동조합원				40.0	44.4	42.3	40.8	25.9	25.3
개인농민	74.1	69.3	66.4	16.0	—	—	—		
협동기업노동자	—	0.3	0.5	1.1	3.3	1.9	—	0.9	0.9
수공업자	1.5	0.8	0.6	0.3	—	—	—		
기업자	0.2	0.1	0.1	—	—	—	—		
상인	3.3	1.7	1.2	0.6	—	—	—		
기타	2.2	1.8	1.5	0.5	0.3	—	1.7		
							(조합원)		

자료 :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Center for Int'l Research, US Bureau of the Census, Washington, D.C.(1990)

는 오히려 더욱 비대해졌다. 중간계급의 성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팽창했다. 마르크스 이론의 맹점이 여기에 있으며 사회주의 붕괴의 핵심이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예기하지 못했던 중간계급의 비판적 역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간계급의 팽창을 체제유지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공산주의에서는 중간계급의 출현이 노동계급 독재의 이념과 상충되어 체제의 모순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신중간계급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규정하고 다루어야 할지가 북한의 새로운 계급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북한에서는 임금노동자 일반을 노동계급으로 보지 않고 노동계급, 농민계급, 병사, 근로인테리의 4개 범주로 분류하고 그 계급적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근로인테리를 독립적인 계급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계층'이라는 다른 개념을 적용시키는 이론적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노동계급의 독재개념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사전에 따르면 계층 개념은 다음과 같다.

어느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사회적 집단. 계층은 독자적인 사회정치적 세력으로는 될 수 없다. 계층 가운데는 인테리같이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으며 톰펜부르조아지같이 계급으로부터 탈락되어 기생적 생활을 하는 계층도 있다. 착취사회에는 기생적 생활을 하는 사회계층들이 있으나 사회주의 사회에는 오직 노동자, 농민에게 복무하는 근로인테리만이 계층으로 남아 있다.²³⁾

북한에서 새로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등장한 것이 이러한 ‘계층’을 이루고 있는 인테리에 대한 계급적 통합이다. 그러나 인테리들은 실제로 체제비판과 동요 세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북한 지도부에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다음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다.

인테리들에게는 아직 낡은 사상 잔재가 적지 않게 있으며 나쁜 사상이 되살아날 수 있는 요소도 많습니다. 인테리들은 생산실천과 떨어져 있고 많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사업상 특성으로 하여 사상적으로 단련할 기회가 적으며 낡은 사상에 쉽게 물들 수 있습니다. 인테리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 참다운 로동계급 인테리로 만들어야 그들이 변질되지 않고 당과 혁명에 끝까지 충실할 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인테리들 속에서 사상교양과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키며 모든 인테리들이 늘 현실 속에 들어가 실천투쟁을 통하여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규율성을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테리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강인한 혁명적 의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²⁴⁾

23) 정치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p.185.

24) 김일성 1980.10.10.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교육을 받았고 부르조아 사상의 영향도 비교적 많이 받은 오랜 인테리는 물론,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자란 새 인테리들도 생산활동과 떨어져 주로 개별적으로 정신활동을 하는 직업상 특성으로 하여 혁명적 단련이 부족하며 사상수양에 힘쓰지 않으면 개인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여러가지 불건전한 사상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²⁵⁾

최근의 동구와 소련에서의 개혁이 신중간계급 또는 인테리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 북한의 지도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의 다음과 같은 말은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적 경험은 인테리들을 로동계급의 진정한 인테리로, 참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지 않는다면 일단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섰던 사람들도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반동적 사상공세 앞에서 사상적으로 무장해제되고 변질되어 사회주의의 길을 포기하고 치욕스러운 반혁명의 길로 굴러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²⁶⁾

이러한 성격을 가진 신중간계급이 성장한 것은 북한 사회의 계급구조에 혁명후기 계급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V. 인성구조의 이중성

이 절에서는 북한주민의 인성의 이중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주민은 한편으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신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25) 「근로자」(1990. 8), p.20.

26) 「근로자」(1990. 8), p.21.

인성'이기를 거부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은 자본주의적 인간을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회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병행하여 인간의식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사회주의적 제도가 서면 낡은 사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초는 없어지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지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착취제도가 없어지고 물질문화생활이 높아진다고 하여 사람들의 공산주의적 개조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근로자들의 머리속에는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잔재가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며 그 부작용도 계속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이 낡은 사상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계속되는 조건하에서는 부르조아적 영향이 사회생활에 널리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 수 없다. 오직 인간개조사업에 선차적 힘을 넣어야만 낡은 사상잔재의 부식작용을 막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²⁷⁾

인간개조이론은 “공산주의적 새 인간 육성에 관한 완성된 과학적 리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개조사업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지 않고서는 자연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높은 속도로 전진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²⁸⁾ 인간개조이론에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노동자, 농민, 인테리 등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하는 과정이며 전사회를 노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 차이를 없애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27) 김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간개조사상은 공산주의적 인간육성의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 「근로자」(1978, 4), p.19.

28) 사회과학출판사 편, 「인간개조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1-2.

인간개조사업의 기본 내용은 주체사상교양이며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 교양, 혁명교양, 계급교양, 집단주의교양,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의 교양이다. 인간개조사업은 무엇보다도 사상개조이며 인민을 김일성의 신민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사상전에서는 수령님의 교시, 당의 의도대로 대중을 무장시키는 것이 첫공정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령의 사상은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의 사상정신적 양식이라고 본다.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는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세계관으로,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상정하고 있는 이상적인 혁명적 인간형은 곧 臣民型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인민들이 인간개조이론의 논리대로 혁명적 인간으로 개조되었는가? 초기에는 혁명적으로 개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혁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아베크롬비(Abercrombie) 등은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하여 중세 봉건주의도 현대 자본주의도 지배이데올로기를 피지배계급에 내면화시키기를 실패했다는 사실을 들어 지배이데올로기 이론을 비판했다.²⁹⁾ 아베크롬비(Abercrombie) 등은 지배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배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이 너무 강조되었으며, 지배이데올로기는 실제로 지배이데올로기론이 주장하는 그러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식적 지배이데올로기는 피지배자에 의하여 침투(penetration)당하기 쉽다. 그것은 지배이데올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응집력이 강하지 못하며 또한 지배이데올로기는 피지배자 개인들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이한 이해는 사람마다 일상적 경험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사회는 다른 어떤 사회보다 지배이데올로기가 더욱 발달한 사회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에서의 피지배자도 사유하는 정신능력이 있는 인간이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어느 사회나 지배자의 무기가 있으면 피지배자의 무기도 있게 마련이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처럼 시민사회가 발달해 있으면 수많은 자발적 결사

29) Nicholas Abercrombie, Stephen Hill, and Bryan Turner, *The Dominant Ideology Thesis* (London : George Allen & Unwin, 1980), p.3.

체(grass roots association)들이 성장하여 지배층에 대항하여 집합행동이 나 공개적 저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절대군주'가 지배하는 억압적 사회일수록 집단적이고 공개적인 저항(open defiance)은 무모한 짓일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에서는 일상생활형의 저항(everyday forms of resistance), 소극적 저항(passive resistance)이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저항을 제임스 스카트(James Scott)는 약자의 무기(weapons of the weak)라고 지칭했다.³⁰⁾

일상생활형의 저항이란 피지배자들이 지배자가 시키는대로 열심히 로봇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외양적으로는 순종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저항하는 것이다. 즉 일하면서도 일부러 꾸물거리기, 고의로 불성실하기, 도주, 무지한 체 하기, 시치미 떼기, 줌도둑질하기, 비방하기, 사보타지 하기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일상생활형의 저항은 인도의 카스트제도하에서 하층민들이 사용했고³¹⁾ 남북전쟁이전에 미국의 남부 흑인들이 사용하던 저항의 형태이다.³²⁾ 이러한 저항은 소수의 영웅적 지도자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공개적인 무장봉기보다 훨씬 많은 저항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도 이러한 일상생활형의 저항이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집단적이고 공개적인 저항이 허용되지 않고 정치체제가 억압적인 사회일수록 최소한의 저항의 형태인 일상생활형의 저항이 발달하기 마련이다. 북한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일상생활형의 저항에 관한 몇 가지 사례만 제시하고자 한다.

개개의 인간들을 따져보면 하나같이 제구실을 할 사람들인데도 엇서기

30) James Scott,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Resista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5) 참조.

31) Edward B. Harper, "Social consequences of an unsuccessful low Caste Movement," *Social Mobility in the Caste System in India; An Interdisciplinary Symposium*, James Silverberg, ed., Supplement No. 3,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The Hague: Mouton, 1968), pp.48-49.

32) James Scott,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Resistance*, p.34.

를 잘하고 웬간해서는 분조장의 지시가 먹어들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그 분조장의 얼굴에 주름살이 퍼질새 없었다. 오죽이나 골머리를 앓았으면 ‘호린하늘’이라는 별명까지 붙었겠는가.³³⁾

나의 눈길을 끈 것은 그의 작업도구였다. 곡괭이 메고 나왔어야 할 그의 어깨에는 벼가래가 없혀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심사가 비뚤어졌다 한들 첫 작업분공까지 어기다지. 나에게는 그의 행동거지가 새 분조장에 대한 말없는 도전처럼 느껴졌다. 나는 삼녀가 가끔 뿔난 언행으로 말밥에 오르곤한다는 것을 전부터 들어왔으나 첫날 부터 이럴줄은 몰랐다. 만사가 다 귀찮다는 건가?³⁴⁾

광춘이는 배가 자주 아프다고 해서 내가 내려갈 때 병원엘 간다고 같이 갔고 창흡이는 그보다 먼저 할머니 3년제사라고 갔는데 둘다 아직 안왔다는 것이다. 뱀이 울곤하였다. <잘한다. 3년제사라는건 3년동안 하는 제사인가? 그리구 밥을 두그릇씩 팡팡 조겨넣어두 흠썰하지 않는 배는 어디가 고장난 건가?>³⁵⁾

일상생활형의 저항은 아니지만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와 피지배자의 실제 생활은 괴리되어 있다는 인성의 이중성도 발견되었다. 북한에서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금지하기 때문에 인간의 보편적 속성인 개인주의는 감추어져 있고 정치적으로 허용된 행위와 태도인 공적 선호(public preference)만 겉으로 노출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외부의 억압이 약화되면 언제든지 사적 선호(private preference)가 현저화될 가능성이 있다.³⁶⁾

33) 변창률, “첫 메아리,” 『청년문학』 (1991. 1), p.23.

34) Ibid., p.38.

35) 한인준, “깊은 산속에서,” 『청년문학』 (1991. 6), p.13.

36) 개인은 정치적 불만이 있을 때 정부를 비판하면서 저항운동에 참여하느냐 또는 비판을 안하면서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나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저항운동에 참여하면서 입게 되는 정치적 박해때문에 公적으로는 정부를 두둔하면서 私적으로 즉 내심으로만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의 선택은 사적 선호(private preference)와 공적

북한에서 공적 선호가 위장되어 있거나 잠재되어 있다는 것은 소설을 통해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다음은 북한소설 「먼길」의 일부이다.

〈의자맡에 쓰러져 있는 저 철부지가 내아들이란 말인가?〉 〈기다려보지요. 철이들면 달라지겠지요〉 안해는 남편을 위안하려 하였다. 〈듣기싫소. 저자식을 혁명화시킬 만한 곳을 탐문하는 중이요.〉 〈당신눈엔 그렇게 보인단 말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동무도 견해가 잘못 서있소. 가정에서도 사상투쟁은 매시각마다 해야 하오. 동무부터 자기를 비판하란 말이요.〉 〈아니 여보, 나더러 동무동무 하면서...그래, 집에서 매 시각마다 사상투쟁을 하겠단 말요. 그럼 회의실도 꾸려 놓자요.〉 아들로 하여 어느 하루도 편한치 못한 예술가 부부였다.³⁷⁾

가정을 혁명화하는 것이 공식적인 선호이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가정에 서조차 동무라는 호칭을 쓰며 사상투쟁을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관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가정이 공식적으로는 가정의 혁명화라는 구호 밑에 가정내에서조차 사상투쟁을 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나 이는 한낱 구호에 불과함을 시사하여 준다.

다음은 집단주의가 지배적인 가치체계이지만 개인들에게 개인의 안일과 가족 이기주의는 포기하기 어려운 귀한 가치라는 사실을 시사하여 주는 단편소설 「상상봉」의 한 대목을 보기로 한다.

산골 오지의 개발현장에 사랑하는 딸이 근무를 자원해오자 시공과장인

선호(public preference)로 나누어진다. 두개의 선호에 차이가 있는 한 개인은 선호위장(preference falsification)을 하는 것이다. 공적 선호는 공개적 저항행위에 참여하면서 입게될 외적 박해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느끼게 될 양심의 손상 사이의 균형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사적 선호는 고정되어 있지만 공적 선호는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혁명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Timur Kuran, 'Now out of never : the element of surprise i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of 1989,' *World Politics* 44(1)참조.

37) 정창윤, 「먼길」(평양: 문예출판사, 1983), p.31; 이은죽, 「북한사회연구」(서울: 서울대출판부, 1988), p.173에서 재인용.

아버지는 마음 속으로 딸의 고생을 너무나 안타까와 한다. ‘회고 가느다란 손매듭이며 반금 싹튼 듯한 연한 참대순 같은 몸매’를 보며, 〈저런 몸으로 힘든 이곳 근무를 자원해오다니〉 시공과장은 해종일 까닭모를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자신이 이상스럽게 느껴진다. 다른 집 아이들이 조국이 부르는 벽찬곳으로 달려갈 때는 왜 그리도 평범하고 범상하게 여겨지는지. 정작 내 자식이 그러한 현실에 뛰어들 때는 그것이 왜 희생으로만 느껴지는 것인지³⁸⁾

북한에서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의 이익과 안일을 추구하는 소집단 이기주의로 발전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농업작업분조를 소재로 한 북한의 단편소설 「사랑의 길」은 분조본위주의에 빠져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 작업반 2분조장은 1분조장과 동창생이구 서로 절친한 사이인데도 글썽 분조본위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1분조에서는 모가 아직 실하지 못해서 2분조 신세를 지게되었는데 2분조장은 절대로 모를 넘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복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안타까와 막 욕을 했습니다.³⁹⁾

다음의 단편소설 「삶의 자격」의 일부이다. 이 소설에서 대학을 졸업하여 개인적 출세를 해야한다는 가치관을 가진 주인공의 ‘삼촌’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북한주민의 이중적 이성구조를 들여다 볼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경영위원회 간부로 일하는 주인공의 삼촌은 조국애 또는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강조한다. 주인공의 삼촌은 주인공의 아버지에게 주인공을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형님! 그래도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사내 녀석인데 공불 시켜야 할게

38) 전택철, “상상봉,” 「청년문학」 (1991. 11), p.22.

39) 강학태, “사랑의 길,” 「청년문학」 (1991. 4), pp.11-12.

아니요?) 〈공부? 왜?〉 〈아 참, 이런... 아무 자격이래두 있어야지 당장 일부러 시키겠소? 지금이야 대학졸업증 없이 어디에 가서 제구실을 하느줄 아오?〉 단순한 사회물계도 모르는 아버지가 답답하다는 듯 삼촌은 넥타이를 늦춰놓았다. 〈흥, 대학간판? 그게 무엇에 필요한거냐? 대학졸업증이 왜 있어야 하는가 말이다.〉 〈형님은 지내 단순한게 탈이에요. 생활이야 어디 그렇소?〉⁴⁰⁾

단편소설 「대들보」에서도 몸이 약한 딸을 청년돌격대에 보내면서 공적 선호와 사적 선호 사이에서 갈등하는 공장지배인 오광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북한주민의 일상적인 삶속에서의 이중적 인성을 관찰할 수 있다. 지배인은 피붙이인 딸을 보내기가 안스럽지만 자기의 얼굴(체면)을 봐서 1년만 참고 견디라고 말한다.

어느날 오광림은 딸애를 조용히 사무실에 불러들이었다. 어머니를 닮아 의소한 몸에 성미 또한 그대로 박꽃 같았다. 년중 내내 햇볕 한번 받아 보지 못한 희고 연한 살갓과 길고 가늘기만 한 팔, 아직도 아버지의 보호 ‘우산’ 없이는 기실 제발로 살아갈 수 없이 연약한 딸애였다. 오래 동안 딸애를 세워놓고 좀저리기만 하던 오광림은 끝내 누구에게도 하소할 수 없었던 마음속 고뇌를 딸앞에 털어놓고 말았다. 〈어찌겠니. 네가 아버지를 좀 도와다오. 지금 온 나라의 청년들이 다 당의 부름을 받구 대건설장에 달려가질 않니. 그런데 지배인의 자식이라구 해서 너만은 공장에 그냥 남아 있어서야 되겠니. 너때문에 아버진 일하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널 홀령 학교에 보낼 수도 없지않니. 그러니 칼에 맞아도 큰칼에 맞으랬다구 소문이 자자한 큼직한 건설장에 가서 한 1년을 꼭참고 견디어라. 그러느라면 알도리 있을게다.〉⁴¹⁾

위에서 몇가지 사례를 통해서 본 대로 북한주민의 인성은 이중성을 넘어

40) 윤경찬, “삶의 자격,” 「청년문학」 (1990. 10), pp.28-35.

41) 원종주, “대들보,” 「청년문학」 (1990. 2), pp.31-32.

일상생활형의 저항까지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식세계의 가치와는 다른 지향의 가치의식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정치적 억압이 강한 권위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당연한 전략이자 결과이다.

Ⅶ. 권력 엘리트 구성의 이중성

이 절에서는 권력 엘리트의 이중적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권력엘리트는 한편으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유일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파벌의 잠재성을 길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초기의 노선갈등을 극복하고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였으며, 파벌의 생성을 성공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북한이 소련이나 중국과는 달리 파벌을 억제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북한에서는 중국이나 구소련에서 나타났던 혁명1세대의 사멸과 권력교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북한 권력엘리트집단내의 파벌형성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45년 이후 지금까지 한 지도자가 장기집권을 했다는 사실이 북한체제에 변화가 없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지도 모른다.

둘째, 북한에서는 권력승계를 장자에게 세습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난 20년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승계준비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중국이나 구소련에서와 같은 전임자에 대한 격하운동이나 대안적 노선을 혁명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현재의 권력엘리트 구조는 이미 김정일 후계체제로 공고화되어 있기 때문에 김일성 사후에도 엘리트집단내에 파벌이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소련에서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 이후에 나타난 다원주의나 중국에서 모택동의 대립통일의 원칙과 같은 경쟁적 사상이 병존할 수 있는 토양이 북한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북한에서는 유일사상, 유일체제, 유일노선만 허용되고 나머지는 숙청될 수 밖에 없는 정치

적 상황으로 인하여 경쟁적 파벌이나 대안적 노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설사 다원주의나 경쟁적 노선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일체제하에서는 아직은 억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에서도 전문관료의 수가 점증하는 등 권력엘리트의 특성에 약간의 변화가 있으나 중국이나 구소련에 비해서는 그 변화의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엘리트 구조에 변화의 잠재력이 성장해가고 있다. 북한의 권력엘리트 구성에는 두가지 유형의 잠재적인 파벌이 성장하고 있다. 그 하나는 혁명 엘리트와 전문기술 엘리트의 분과이며, 다른 하나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친인척 엘리트와 비친인척 엘리트의 분과이다.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앞의 제3절에서 살펴본대로 북한에서는 정권수립이후 혁명세대가 사멸함에 따라 비혁명세대 전문기술관료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 권력의 상층부까지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빨치산세대와 과도기적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표 3>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직업별 출신성분을 보면 노동자와 농민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사무직과 전문직 출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공업화의 결과 사무직 전문직의 절대적인 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982년 이후 사무 전문직이 대의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5%를 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노동당의 정위원 및 후보위원, 정무원의 부장 및 부부장급 엘리트의 출신성분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전문관료출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아직도 혁명 1세대가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사상과 정치지도가 강조되고 있지만 산업화가 진전되고 사회적 복잡성과 다원화가 증가하면서 사상과 정치중심의 리더쉽 보다는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리더쉽이 더욱 요청됨에 따라 전문관료집단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도 일반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김일성 이후 체제는 점점 더 이같은 신중관계급의 기능이 강화되어 북한사회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며 제한적이나 개혁과 개방을 실현할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아직은 김일성의 강력한 유일체제하에서 파벌의 발달이 억제되어 있지만 상층부 권력에 변화가 발생하면 혁명엘리트와 전문기술 관료 사이에 노선의 갈등이 필연적으로 예상된다.

〈표 3〉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직업성분별 구성비

기 별	노동자	농민	사무·전문직
제4기(1967)	63.89	15.12	20.79
제5기(1972)	64.14	13.13	22.56
제6기(1977)	42.8	11	46.2
제7기(1982)	34.6	10.2	55.2
제8기(1986)	36.4	12	51.6

자료 : 통일원 편,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1988)

중기별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보고」 분석.

북한 상위 권력엘리트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잠재적인 파벌은 김일성 친인척 집단과 비친인척 집단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인척이 권력의 핵심에서 주류 집단세력으로 형성하고 있고, 비친인척 집단은 배제되어 있다.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 후계자로, 김일성의 이종동생 강성산이 정무원 총리로 기용되고, 박성철, 김달현, 김용순, 황장엽, 장성택 등 친인척이 권력의 핵심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이것도 앞의 혁명-비혁명의 파벌과 마찬가지로 김일성 사망시 잠재된 불만과 갈등이 노선갈등의 방식으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표 4〉 김일성 관련 친·인척 권력엘리트

성명	관계	직위	당서열
김정일	김일성의 장남	당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당 조직지도부장 당 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인민군총사령관 공화국 원수	2
강성산	김일성의 이종동생	정무원 총리 당 정치국위원	4
박성철	김일성의 삼촌 김형록의 사위	국가부주석 당 정치국위원	5
김달현	김일성 오촌조카사위	당 중앙위원회 위원 정무원 부총리 겸 대외 경제 위원회 위원장 무역부장	14
김용순	김일성의 전처 김정숙의 남동생	비서국 비서 당 국제부장 최고인민회의의 외교위원회 위 원장	19
황장엽	김일성의 조카사위	당 중앙위원회 위원 비서국 비서 조평통 부위원장	27
김중린	김일성의 친동생 김영주 처의 인척	당 중앙위원회 위원 비서국 비서 대남공작의 총책임자 최고인민회의의 자격심사위원 회 위원장	28
김창주	김일성의 삼촌 김형록의 아들	당 중앙위원회 위원 정무원 부총리 최고인민회의의 예산심의위원 회 위원	32
강석송	김일성의 외척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역사연구소장	38
양형섭	김일성의 고종사촌 김신숙의 남편	최고인민회의의의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	42

성명	관계	직위	당서열
김봉주	김일성의 삼촌 김형록의 아들 김창주의 동생	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사무국장	51
장성우	장성택의 친형	당 중앙위원회 위원 사회안전부 정치국장	104
김성애	김일성의 처	「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116
김경희	김일성의 장녀 장성택의 처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경공업부장	173
이용무	김일성의 조모 이보익의 조카	당 중앙위원회 위원 교통위원회 위원장	174
김정숙	김일성의 고모부 김영철의 차녀(허담 처)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조선」지 책임주필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291
장성택	김일성의 사위 김경희의 남편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당 근로단체사업부, 3대 혁명소조부 부장	302
김평일	김일성의 차남 김성애 소생 김정일 이복동생	전 불가리아 주재대사	
강덕수	김일성의 외삼촌 강보석의 아들	조선방송위 부위원장	
강인수	김일성의 외삼촌 강보석의 아들	화학공업부 부부장	
김정우	김일성의 고종계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교류협력분과위원회」 북측 위원장	
강영섭	김일성의 외종숙 (강양옥의 아들)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조선기독교연맹 위원장	

출처 : 전현준, 안인해, 이우영,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73-75.

VII. 경제구조의 이중성으로의 이행

북한의 경제구조에서도 이중성으로 이행될 전망이다. 북한은 경제발전전략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자력갱생전략에서 수출산업확대와 자유무역지대의 건설을 추진한다는 정책의 가닥을 잡았으며 구체적인 추진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의 핵문제 때문에 이 정책의 집행은 유보되어 있으나 북한내부에서는 정책의 대계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

북한이 경제정책에서 대외무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대외무역의 다각화, 수출품의 우선생산 및 품질향상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북한은 1984년 합영법을 제정 공포하는 등 극히 부분적으로나마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을 포함한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하였고, 제3차7개년계획(1987~93)에서 무역증대의 필요성을 보다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북한은 정책적 측면에서 대외무역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과는 달리 자력갱생적 통제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대외무역을 수행해 왔다. 그동안 북한의 수출정책은 '수입을 위한 수출'의 원칙에 입각해 있었으며 대외무역을 하면서도 사회주의권내의 구상무역 형태에 치중했고 '주체적인 대외무역정책'에 기초해 왔다.⁴²⁾ 최근 무역부장 김달현도 "대외무역을 철저히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에 복종시키며 자립적 민족적 경제를 건설하는 기초위에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원칙을 일관하게 고수하여 왔으며...이 때문에 항상 외화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⁴³⁾

42) 1967년 12월 김일성이 발표한 '10대정강'뿐만 아니라 대외개방화로 정책노선을 전환한 1984년 1월의 발표내용(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회의의 의안 "남북협조와 대외무역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을 더욱 발전시킬 것에 대하여")에도 명백히 나타나 있다.

43) 김달현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근로자」 (1989년 2호), p.61.

그런데 북한은 최근 수출정책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제한적인 수출정책에서 대폭적인 수출확대를 위한 시도를 시사하고 있다.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는 길은 대외무역과 수출확대에서 찾아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부 원료, 자재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된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 우리나라에 있는 풍부한 부원자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 이용할 수 있다... 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출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수출과 수입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대외무역은 수출을 첫 공정으로 선차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다.⁴⁴⁾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최근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1980년부터 나타나던 내용들이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최근에 와서 더 구체화되어 강조되고 있으며, 매우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당의 무역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대외무역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에서 무역확대에 관한 새 정책방향을 전반적으로 제시했다. 북한은 이 회의에서 대외무역발전이 경제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생활을 높이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무역활성화방안으로서 수출품 생산기지 조성과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수출증대를 촉구했다. 각공장 기업소별로 가공무역사업의 강화, 모든 경제부문에서 수출품직장, 수출품작업반을 꾸려 1가지 이상의 수출품을 생산하도록 촉구했다.

이후 1992년 2월 26일에 정무원결정이 있었는데 “대외무역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었다.

변천된 현실에 맞게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대외무역을 더욱 전면적으로

44) Ibid., pp.61-64.

발전시켜야 한다.···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수출을 첫자리에 놓고 수출품부터 먼저 생산하여 내보내는 원칙을 지키며 수출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수행에 대한 총화사업을 잘해야 한다.

북한은 이번 정무원 결정에서 ‘전면적’, ‘대대적’ 등의 용어를 반복 사용하면서 대외무역 증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북한의 대외무역 실상을 비교적 정확히 인식한 바탕위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가까운 몇해 사이에 도달해야 할 수출목표액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출품의 품종과 물량확대, 수출시장의 개척, 가공무역의 강화, 수출품의 질적제고, 관련기관 및 종사자들의 역할강화 등을 제시했다.

북한 경제구조의 이중성을 심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선봉 나진 자유무역지대의 건설과 유엔개발기구(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UNDP) 주관의 두만강유역 개발사업이다. 북한은 선봉 나진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이미 외국인 기업법, 기업소득세 법안을 이미 마련하였으며 외국인출입국 등 모든 관련 법규들을 이미 정비하였다.

김정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은 일본 기자들에게 선봉 나진 지역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법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항만개발 및 확장과 철도, 도로건설 분야에 대한 일본의 투자, 경공업·전자공업부문의 일본 기업진출을 초청한 적이 있다.

북한의 최근 수출확대전략의 특징은 철저히 ‘숨은 개혁’이라는 점과 사회주의 체제에 동화되는 방식의 개혁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와 수출확대정책의 양면적 전략은 1980년대 초기 중국이 취했던 정책과 방법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마치 중국에서 1978년 이후 덩소평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고수하자는 사개견지(공산당 영도, 사회주의노선, 프로레타리아독재, 마르크스·레닌·모택동사상)의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경제적 개혁·개방을 추진하던 것처럼 북한도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와 주체사상을 강화하면서 대외개방적 경제정책을 시도하

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중국식 사회주의’ 고수를 견지하면서 개혁·개방을 하듯이 북한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수출산업확대를 통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지속될 북한식 개혁·개방의 양식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급속한 개혁 개방이 가져온 여러가지 정치적 문제를 고려하여 매우 완만하게 개혁·개방을 추진한다는 것이 북한식의 개혁 개방모델이 될 것이다.⁴⁵⁾

VIII. 결 론

지금까지 북한사회의 인구구성, 계급구조, 인성구조, 권력 엘리트 구성 및 경제구조에 있어서의 이중성을 살펴보았다. 북한이 아직은 스탈린주의적, 중앙집권적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의 제반측면에서 구조적인 분화가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분화를 촉진시킨 요인의 하나는 자연적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일 것이다. 한 세대의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전체인구의 구성이 혁명세대에서 혁명후기세대로 교체되었으며, 권력 엘리트도 마찬가지로 혁명후기 세대로 교체되었다. 두번째 요인은 사회주의 공업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분화를 들 수 있다. 이 결과 계급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여 프롤레타리아와는 상이한 계급이익을 가지는 사회계급이 생성하게 되었다. 세번째 요인은 혁명이란 혁명적 상황에서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혁명이 일상생활에서 항상적으로 존재함으로써 혁명자체가 일상화(routinization)되어 버렸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혁명은 더 이상 혁명적이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들이 상호작용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성이 혁명적 인성과 혁명후기적 인성의 이중적 인성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제부문의 구조적 분화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사회주의제

45) 김서명 중국 동방경제기술공사 이사장의 세미나 발표내용(민족통일연구원, 1993년 2월 19일):

국의 체제변화를 야기시킨 주요한 요인이었음을 고려할 때 북한사회 변화의 전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을 획일적인 사회로 보는 관점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면적으로 안정된 것처럼 보였던 소련이 갑자기 붕괴된 것은 이러한 사회의 구조분화와 이중구조의 심화 때문이다. 북한에도 정도는 아직 미약하나마 제2의 사회(the second society)가 형성되고 있다. 지도부에서는 변화의 의도가 전혀 없지만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변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인민들의 의식에 변화가 일고 있다.

이렇게 사회구조가 분화되면 이전과 같은 획일적이고 일사불란한 국가통제가 이완되기 마련이다. 각종의 비공식집단이나 소집단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사회의 독자적인 여론형성구조를 낳게 되고 국가의 공식적인 선전은 이를 통해 여과되어 사회에 전달됨으로써 당과 국가의 이데올로기적인 통제모니가 부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북한도 정도는 미약하나마 집단주의적 사회에서 사적영역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치적 주도에 의해서 구성된 북한사회에 점차 사적 영역의 공간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